

논문 2008-6-23

근현대 한글 컴퓨터서체의 변화와 디지털폰트가 Caligraphy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Studies about Changes in Modern Korean Font and Effect of Digital Font to Caligraphy Design Thinking of Korea

이성수*, 최병목**

Lee-Sung Soo and Choi-Byoung Mook

요 약 최근의 우리나라 타이포그래피의 트렌드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2005년 이후에 나타난 트렌드가 캘리그래피인데 일반적인 담론은 우연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글캘리그래피의 태동은 한글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있어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한글의 기계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늦어서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병합되고 6.25민족동란을 겪으면서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그에 맞는 문화적인 발전도 늦어졌다. 우리글인 한글이 자립한 시점도 1990년 초반으로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한글의 원도를 스캔하여 기본적인 기틀을 구축함과 시기를 같이한다. 80년대 후반부터 한글에 자주화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 한글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었다.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기본적인 글자생활을 하기위한 명조나 고딕체등 최정호의 서체를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끼워 맞추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 이후 90년대 후반까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되어진 서체를 디자인적으로 양식화된 서체를 만들어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서체회사의 양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산돌글자은행과 윤디자인연구소가 새롭게 만들어 선보인 서체들이 산돌글자은행의 '옛멋글씨'(주로 한글개발이후 목판본)를 윤디자인연구소는 서예느낌이 나는 '필' 시리즈를 내놓음으로 손 글씨의 맛을 디자인 시장에 맞보였다.이러한 반복된 과정은 지금의 캘리그래프로 나가는 자연스러운 원동력이 되었고 이 양대 메이저의 회사의 역할은 지금의 캘리그래피의 시대를 낳는 자연스러운 산파역할을 했다.

Abstract Recently, typography in Korea has been varied.

Among them, after 2005 a new trend caligraphy has appeared and in reality people discussed that this has been occurred as a coincidence. However, as a view of one who is interested in Hangeul typography, born of Hangeul caligraphy is not a coincidence. It is because computerizing of Hangeul has been later than U.S. or Japan.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and experienced the Korean War and economical independence got late and cultural independence got late as well. Our language, Hangeul was independenced in the beginning of 1990's after computer was introduce and original letter of Hangeul was scanned and basic standard was built. From the end of 80's there were many efforts for independence of Hangeul but there were problems on hardware side than software side. In the beginning of 90's basic fonts such as Myungjo or Gothic of Choi Jung-ho's fonts were set for computer hardware, but later 90's can be called as a time for distributing designed fonts for that new fonts that were planned and applying new ideas on fonts were done. In 2000 the two major font company in Korea Sandoll Communication and Yoon Design Institute made a fonts such as When branding had to be done by designer, typo must be written so adjusting size and moving baseline made old style and caligraphy fonts to be born. These cycling process has been natural motive for nowadays' caligraphy and these two major companies' role has made caligraphy to be popular.

Key Words : 컴퓨터, 서체, 한글, 캘리그래피

*정회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근무

**정회원, 위드 프레스 근무

접수일자 2008, 수정완료 2008

I. 서 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글의 생존과정과 한국전쟁이후 국가의 기본적인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그사이 어쩔 수 없이 생존체계가 일본에 또 다른 식민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게 된 동기와 computer를 이용하여 빠르게 현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대에 들어서서 1990~2000년까지 컴퓨터라는 도구를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서체를 분류하고 형태와 느낌을 분석해 보았다. 용도에 따라 타이포그래피가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빠른 속도로 등장하는 서체 변화에 대해 객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글자생활'을 하는데 가치를 두는 것에 목적을 둔다.

II. 본 론(스타일:각 장 제목, 기존기술)

1443년 한글 창제 이후 1446년 한글 반포로 정음체, 동국체, 용비체, 석보체, 월인체등이 세종대왕 당시에 만들어진다. 이때 만들어진 서체들은 로마자나 한자의 발전과정과는 달리 필기구에 의한 발전이 아닌 처음부터 디자인 되어져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1. 한글의 발전

가. 주조활자에서 수동사식시대(1880~1990)의 글꼴

1980년 한불자원이 우리나라의 최초사전으로 편찬되었다. 프랑스 캐톨릭 선교사들이 만들고, 폰트는 최지혁의 글씨체이다. 1889년에는 한영자원이 편찬되었다.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재단의 이사였던 계일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글씨는 이원모, 이창직, 이교승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당시에는 사전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때에 우리의 기술력은 출판도 국내에서는 제작할 능력이 없어서 일본 요코하마의 쓰꾸지활판 제작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모두 외부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1882년 만주 봉춘 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성서체'를 이용하여 역시 요코하마에서 인쇄 됐다. '최지혁체'

와 '성서체'의 차이점은 '최지혁체'의 모습이 붓글씨 형태로 지금의 명조체와 비슷하다면 성서체는 design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종성의 위치가 한글가로모음을 중심으로 종성이 중심에 맞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된 형태의 글씨모양이 나타난다. 최초의 근대식 관립 인쇄국인 박문국은 1886년(고종23년1월1일) 한글과 한자혼용인 한성주보를 발간한다.

당시 개발된 서체가 한성체로서 특징은 잘 정리된 정사각형 틀에 맞추어진 모습으로 교과서와 신문들에도 쓰여 졌으며, 기독교(개신교)의 신, 구약 성경본문으로 사용되어 졌다. 1915년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독본체가 쓰였는데 '한성체'와는 달리 붓글씨 느낌이 사라지고 design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나. 수동사진식자시대

사진식자기관? 사진식자라 함은 사진식자기를 이용하여 글자를 찍어내는 것으로 사진기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주조활자와는 달리 활자를 네거티브하게 만든 활자판에 빛을 투과하여 렌즈를 통해 인화지에 상을 맺히게 하여 한자, 한자 찍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한가지의 활자판을 이용하여 렌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꼴의 크기나, 두께, 사체로의 변형을 자유롭게 줄 수 있다.

1954년 (주)국정교과서에서는 벤틀자모조각기와 사진식자기를 도입했는데 이 당시에 우수한 사진식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식자기가 국내 도입, 보급 되었다. 초기에는 금속주조활자가 인쇄의 중심을 이루다가, 점차 평판인쇄기(현재 대다수가 쓰고 있는 인쇄형태)주를 이루며 급속도로 사진식자의 국내보급이 이루어진다. 모리자와(森澤)와 샤켄(寫研)사가 주도 하였고 사진식자체의 개발 즉 소프트웨어인 글자체의 제작에 경쟁적으로 참여한다. 이때부터는 우리글의 원도를 일본이 수입해서 한국에 되파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제작되었던 서체가 최정호에 의한 MS의 세명조(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얇고 가는 글씨를 선호하여 일본어한자와 가나가 있었으므로 이를 먼저 제작했음) 그리고 SK의 세명조, 중고딕, 태고딕, 세고딕, 신문명조, 신문고딕, 환태고딕, 중명조가 차례대로 개발판매 되었고 MS의 중명조가 새로 제작 판매되었다. 이 글꼴의 기초는 대부분 최정호의 Design으로 가장 호평 받으며 널리 알려진 서체이다. 이 서체들은 한글의 초기 전산활자와 컴퓨

터용 서체의 근간이 된다. 이외에 나루체, 그라픽체, 빅체, 공작체등을 최정호에 의해 개발 되었다.

다. 전산서체(1970년~1990초반)

1970년대 말부터는 IBM, UNIVAC, 동양전산기술등의 사무용 컴퓨터가 국내에 도입된다. 1979년에는 한글컴퓨터그래픽사(이하한컴)에 의해 전산시스템 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 컴퓨터 조판기술)가 보급되었다.

이때의 전산활자는 수동사식의 연장선상에 있었기에 새롭고 파격적인 활자가 나타나지 못하였지만 컴퓨터로 이전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이전시대까지만 해도 네모를 안에 넣는 완성형 활자가 한글Design의 중심에 있었다. 1976년 조영제, 1977년 김인철에 의해 네모틀을 벗어나는 조합형체가 제안되었다. 모듈을 만들어 초성, 가로모음, 세로모음, 종성으로 자리를 정해주어 자모음을 디자인하여 넣는 방식을 말한다. 이 조합형의 최초시도는 1984년 ‘샘이 깊은 물’ 창간호에 소개된 이상철의 샘이 깊은 물체(이하 샘체)이고 1985년 매킨토시를 이용 최초로 디지털 서체를 만든 것이 ‘안체’이다.

라. 현재의 폰트와 타이포의 유형(1990~2000)

수동사신식자시대, 전산활자시대와 컴퓨터 활자의 시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시기가 1990~1995년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인쇄의 방식은 평판인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DTP(desktop publication)방식이 구현되는 것은 전산과 컴퓨터(초기에는 애플 컴퓨터 즉, 매킨토시를 지칭)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자의 완성도는 수동사식이 뛰어나서 두 가지 방식이 병행하여 쓰이고 있었다. 1997년 12월 이런 형태에 종지부를 찍고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컴퓨터 보다는 위지위그(프린트물이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 보이는 것. 보이는 그대로 출력된다) 구현이 잘되지 않던 전산활자시장은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이 크게 축소된다. 기술력 면에서 SMI(신명시스템) 1988년 설립으로 가장 뛰어 났다. 글씨의 품질에서는 1984년 돌체를 가지고 설립하고 1991년에 조합형 산돌60체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은 산돌글자은행과, 1989년 윤체와 함께 완성형 서체를 중심으로 선보인 윤디자인연구소가 나타났다. 1989년 한양 시스템은 PC(윈도우즈를 기반)를 기본으로 하는 서체개발 회사로 1994년 매킨토시

용 서체도 만들어 시장에 등장했다.

2. 한글서체의 분류

새활자시대와, 사진식자, 전산활자시대의 글꼴로만 본다면 특별히 서체를 분류할 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1990년대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를 컴퓨터폰트시스템 시기로 보면 우리의 서체도 분류하여 쓸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서체가 나왔다. 이에 생각이 미쳐 글의 형태와 뉘앙스(nuance)에 맞추어 서체를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

III. 본 론

가. 한글 서체들의 사용사례 분석

1. 산돌 글자은행

교적 개발된 서체들이 고르게 쓰이고 있다. 사용사례들은 산돌글자은행의 갤러리에서 뽑았는데 홈페이지 관해 일관성 있는 노력도 높이 살만하다. 서술자도 산돌의 서체를 고르게 써보았는데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돌글자은행의 컨셉트와 쓰임새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중 카리스마체는 미래지향적인 서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래지향적인 것 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곳에 쓰이고 있다. 성경체의 경우는 복고적인 이미지의 컨셉트와 맞게 옛스러운 느낌이나는 내용의 포스터나 sign에 많이 쓰이고 있다.

2. 윤디자인연구소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들을 다양하다. 그리고 시대에 흐름을 끌고 가기에 디자인을 하기에 디자이너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폰트들을 보면 윤디자인연구소의 초기 서체인 윤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유행에 끌려 다니지 않고 유행을 선도해 간다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는 말이다.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서체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 오히려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서체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윤디자인은 공익성을 생각해서인지 독도체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 철수체를 디지털폰트로 개발하고 약간의 시간만을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이철수의 개인에게 폰트를 돌려주어 이철수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게 해주었다.

타임스는 개발 이후 1년만 독점 사용권을 가진 다음 일반 대중에게 공개, 보급했다. 서체까지도 모두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다. 결국 6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타임스의 결정은 자사의 서체를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도록 만든 셈이 되었다.

IV. 실험 및 결과

한때 하드웨어가 없어 소프트웨어를 할값에 판매하고 그것을 다시 사서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다. 서체를 제작하는 문제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해결되었다. 지난 100년간 외세에 의지하는 과정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선조들의 무수한 고통을 소중하게 보고 느꼈다.

기존폰트들이 그래픽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지금은 좀 더 부드러운 손글씨체와 옛활자에서 발견한 미적인 부분을 다듬어져 나오는 것처럼 융통성이 있는 서체제작으로 전환했다. 윤디자인연구소는 손뭇글씨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손글씨에 접목시켰다. 서예를 전공한 사람이 디자인하고 이를 발전시켜 폰트시장에 참여시켜 작품성을 근거로 하여 캘리그래피의 전 단계인 서체를 발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대중에게 새로움을 선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현재는 폰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기술로 해결하고 있으나 억지스러움이 없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글자를 디자인해드 되는 툴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캘리그래피가 나타났다. 캘리그래피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손글씨와 옛뭇글씨가 있다. 서체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폰트는 정형화된 모듈을 필요로 한다. 윗선과 아랫선을 맞추어야 하고 동일한 글자를 마음대로 몇 개씩 디자인 할 수 없다. ex. '다행이다'를 보면 처음에 오는 '다'와 마지막의 '다'의 디자인은 같아야 한다.) 옛활자도 너무 자유스러운 중심선의 변화로 고르게 조판되기에 어렵다.

캘리그래피는 컨셉추얼하게 서체를 느낌에 따라 자유롭게 글씨를 쓰는 것에 방해받을 일은 없다.

V. 결론

우리의 글은 우리 선조들처럼 자유스럽고 호방하면서도 과학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젊은 정신을 가진 글이기도 하다. 아직도 본문용 서체는 로마자처럼 많지 않아 부족하고, 눈에 익지 않은 부분이 남아서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서체회사가 시작한 손글씨와 아직 서체디자이너의 길을 갈 수 있는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캘리그래피가 가지는 자유스러움과 감각 있는 모습은 양식화된 서체에 식상해 하던 대중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캘리그래피가 싫증이 나고, 점점 도태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후에 문제에 항상 준비하고 흐름을 읽으며 차기에 올 다음상황을 디자이너들은 준비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1] 윤영기. 윤영기의 한글디자인. 도서출판정글.1999년2월 5일
- [2] 김정균. 한글 돌움체 활자 가족체계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2006년 1월 15일
- [3] 산업디자인 112.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07년 3월 1일
- [4] 매킨토시 서체 견본집 2003. 위드프레스. 2003년 2월 25일
- [5] 한글 서체 견본집.디자인네트 2007년 10월 1일
- [6] 한일 타이포그래피 포럼. 산돌커뮤니케이션. 2007년 2월 22일
- [7] 코미야마 히로시. 근대 활자 전파와 문화 학술세미나. 2005년

저자 소개

이 성 수(정회원)



- 2004년 홍익대학교 산업(광고)디자인과 석사 졸업.
 - 2003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작가
 - 2008년 한국디자인진흥원 근무
- <주관심분야 : 방송, 인터넷, TV>

최 병 목(정회원)



- 1992년 서울산업대학교 산업(시각)디자인과 학사 졸업.
 - 2002년 홍익대학교 산업(광고)디자인과 석사 졸업.
 - 2001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작가
 - 2008년 한동대학교 산업디자인교수 역임
- 2008년 현재 워드프레스 연구위원.
<주관심분야 : 방송, 인터넷, TV>